

## “청소년을 존경하는 어른이 되고파”

### 조재승 전주 YMCA 이사장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자리한 전주YMCA는 올해 4월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했다.

지난 4월 제22대 전주YMCA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재승 이사장은 화려한 경력보다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는 교육자이자 시민운동가다.

순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전학 와서 신홍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신홍중교 교사와 교장으로 31년을 근무하여 40여 년 가까이 신홍중으로 보낸 그는 “학교 덕분에 제가 성장했다”고 말한다.

조 이사장의 삶은 한마디로 ‘교육과 섬김’으로 요약된다.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국사 교사로 한평생을 신홍중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신홍중교에서만 31년간 재직하며 교육 현장을 지켰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조 이사장은 장로로 김재 동부교회를 섬기며 노모를 모시고 예수병원 간호사로 정년퇴직한 부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조 이사장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이사로 재임하며 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퇴직 후에도 편안한 노후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며 전주 YMCA 활동에 뛰어들어 7년여간 시민 운동을 하였고, 이제는 지역 시민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전주 YMCA를 이끄는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전주 YMCA 활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YMCA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이 평생 중요하게 생각해 온 가치관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생명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남은 삶을 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철학은 YMCA가 추구하는 목적과도 맞아떨어졌다. 조 이사장은 YMCA의 존재 이유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특정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 생명이 존중받고, 평화가 실현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는 특히 “평화는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이 또한 관심을 가진 분야는 남북 평화와 통일운동이다. 최근에는 통일보다 평화 체제 구축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는 “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전주YMCA는 현재 전북하나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다 함께 놀이센터 등 전북 지역에서 11개 기관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 이사장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인사말을 건넨다고 한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보통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하는 인사말은 다소 낮설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만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청소년들은 처음에 이해합니다. 왜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느냐고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리 존경한다고 인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순창의 청소년들을 만날 때도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만의 독특한 인생철학이 웃음이 담겨 있다.

지난해 전주 YMCA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조성했다.

시민들이 만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고민하는 공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전주 YMCA가 해야 할 일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조직의 세대교체를 꼽았다. YMCA 역시 다른 시민단체처럼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80~70대가 실무까지 맡는 현상은 조직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합니다. 정치, 법조,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전주 YMCA와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 동안 젊고 다양한 인재들이 전주 YMCA 이사회에 참가 활동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자신 이후 전주 YMCA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는 것도 이사장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순창에 YMCA 지회 설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조 이사장은 자신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먼저 칭찬했다. 특히 전임 김종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한 분”이라며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순창 지역 YMCA 관계자들과 전주 지역의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가 보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평생 기독교 명문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일관되게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도록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온 그는 역사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고 믿는다. 그래서일까. 그의 말에는 경쟁과 성과보다 사람과 공동체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조재승 이사장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신념은 오늘도 전주 YMCA를 통해 전북의 지역사회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남원시, 젠더 관점 역량강화 교육 진행

남원시는 지난 11일, 시민, 시민참여단, 여성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남원 조성을 위한 젠더 관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불편을 인식·개선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원광대학교 조영국 교수는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적 도시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시민참여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젠더 관점을 어떻게 융합하고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남원시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은 장학문화재단, 김나윤 초청 'JB인문학 강좌

(제)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지난 11일 자유고등학교에서 2026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진로와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피트니스 선수인 김나윤 강사가 초청돼 ‘좌절이 왔을 때 장차해야 할 마인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강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온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며 학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김 강사는 “인생에서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회복탄력성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제 행사

김제시는 지난 12일,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제 및 스마트팜 온실 체험’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강대연 농협김제시지부장, 김중례 백구면 주민자치위원장, 송석봉 백구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혜숙 백구면 생활개선회 회장, 그리고 부용·난산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올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손모내기·스마트팜 온실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 2021년 11월 준공 이후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4개 시설이 연계·집적화되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온실 임대, 상품작물 및 ICT기반 스마트팜 실증·상용화 지원, 빅데이터센터 생육·환경정보 등 수집·분석, 농기지원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농어촌공 전북, 아중저수지 환경정화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 아중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수변공간 조성에 나섰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전주 아중저수지 일원에서 ‘아름다운 농촌민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본부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와 수변공간 일대 환경을 정비하는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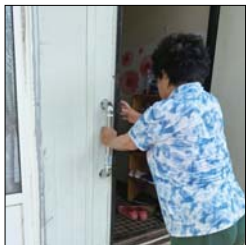
아중저수지는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저수지로, 현재는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대표적인 수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탤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공사 관리시설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본부는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 남원 덕과면, 어르신 안전 손잡이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고령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안전 손잡이(보조대·인선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가정 내 낙상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20세대를 선정해 직선형·I자형 안전손잡이 등을 화장실·현관 등 어르신 이동이 잦은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박종만 덕과면장은 “작은 안전시설 하나가 어르신들의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 민주평통 전주, 2분기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협의회장 이강실)는 지난 12일 전주 치명지산성지 평화의전당 유형점 홀에서 민주평통 김영복 전북 부의장과 자문위원, 내빈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개회사와 보컬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통일외견 수령 결과 보고,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요 사업계획 논의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강실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며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 민족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며 “전주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평화통일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협의회장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보컬 자문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도 진행됐다. 위촉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우범기 시장이 전달했다.

이어 1분기 통일외견 수령 결과 보고에서는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와 연라채널 복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평화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성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소미순 자문위원은 최근 중동전쟁과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불안 등 국제사회의 복합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과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향후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사업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추진 계획도 소개됐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 인식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참여 캠페인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통일교육, 백두산 통일캠프, 여성 평화 통일 역량강화 사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이카데미, 전국 청소년 통일댄스 퍼포먼스 대회 등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통일은 지속적인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 제10회 한옥마을 전통 트로트가요제 성료

### 대상에 심병윤씨 '영예'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가 주관한 ‘제10회 한옥마을 전국동동 트로트가요제’가 지난 11일 전주 풍남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옥 대회본부장, 김해금 후원위원장, 이수정 추진위원장, 이호기 준비위원장, 강정원·유태성 진행위원장, 오이순 관리위원장, 박부철 심사위원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식, 노래 경연, 축하공연 및 장애인 문화예술 콘서트, 행운 상표 추첨,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33명 중 예선에 통과한 12명이 본선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의 영예는 심병윤씨에게 돌아갔다. 심씨에게 상금과 트로피 등이 수여됐다. 이동재씨와 안근화씨는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김재훈 기자



공성용씨와 김연서씨는 우수상을, 김영환씨와 전종호씨는 우등상을, 안정희씨와 이영삼씨는 장려상을, 임재선씨와 유인숙씨는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최연아씨는 도전상을 받았다.

함께 열린 대회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김해금씨, 이호기씨, 강정원씨, 유자씨, 김미정씨, 이경식씨가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